

## 공상등기 사전인허가(前置审批) 사항 일부 조정

2017. 5. 7.부터 시행되는 국무원의 <공상등기 사전인허가의 추가 감소에 관한 결정(关于进一步削减工商登记前置审批事项的决定)>(이하 “<감소결정>”)에 의해, 일부 공상등기 사전인허가 사항이 사후인허가(后置审批)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### 가. <감소결정>의 내용

아래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(또는 기구)은 종래 사전인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, 이제는 사후인허가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- a. 전당(典当)업 및 그 지점(分支机构)의 설립 인허가
- b. 중외 합자, 합작 인쇄기업과 외상독자 포장·장식(包装装潢) 인쇄기업 인허가
- c. 출판물 인쇄경영활동 기업 인허가
- d. 외국 항공사 중국 상주 대표기구(驻华常设机构设立) 설립 인허가
- e. 민용항공기(엔진, 프로펠러) 생산 인허가

### 나. 시사점

사전인허가 제도는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의 사업목적(经营范围)에 소정의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 관할부서의 인허가1를 받은 후 관련 인허가 문서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회사 설립 또는 사업목적 변경등록을 진행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.

<감소결정>에 의하면, 위 a. 전당업 및 b, c, e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의 설립 등록 또는 사업목적 추가 등록, a. 전당업 회사 지점 및 d. 외국 항공사 중국 상주 대표기구 설립은 우선 관련된 공상등록을 진행한 다음 추후 해당 관할부서의 인허가를 받으면 됩니다. 따라서 이는 당해 업종에서 사실상 행정절차를 완화 또는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.